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 박물관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프로그램 연구

- 초등학교 3~4학년에서 진행되는  
전통미술교육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신 주 원

# 박물관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프로그램 연구

- 초등학교 3~4학년에서 진행되는  
전통미술교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nked program of museum education  
and school education

: Focused on the traditional art education for  
the 3-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201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신 주 원

# 박물관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프로그램 연구

- 초등학교 3~4학년에서 진행되는  
전통미술교육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종 경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신 주 원

# 신주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홍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유섭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종경 인

2015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제2장 본론 .....	 4
제1절 미술교육에서 전통미술 교육의 실태 및 선행연구 .....	4
1.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교육의 실태 .....	4
1) 현행교과서에 수록된 전통미술 교육 .....	5
2)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미술 교육 .....	11
2. 박물관·미술관과 학교교육 연계프로그램 선행연구 분석 .....	14
1) 덕수궁근대미술관과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 사례 .....	14
2) 국립광주박물관과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 사례 .....	20
제2절 학교교육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연계활동과 전통미술교육 .....	24
1.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역사와 역할 .....	24
1)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역사 .....	24
2)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역할 .....	26
2. 박물관·미술관 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필요성	30

제3절 학교와 박물관·미술관의 통합교육으로 인한 효과적인 전통미술 교육 프로그램 .....	34
1. 박물관·미술관과 학교통합교육 방안 .....	34
1) 초등 미술에 있어서 박물관의 교육적 활용 .....	36
2) 학교연계 교육의 방향.....	39
2. 통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	40
1) 프로그램 전개 .....	40
2) 프로그램 내용 예시 .....	41
3) 평가 .....	45
3. 학습지도안 .....	47
 제4장 결론 .....	 59
 참고문헌 .....	 61

## 표 목 차

[표 1]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주요 활동 .....	6
[표 2] 학년 별 감상 작품 분석표 .....	7
[표 3] 학년 별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중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 .....	8
[표 4] 영역별 전통미술의 이해 교육 .....	8
[표 5] 덕수궁근대미술관 학습단계별 모형 설계 .....	17
[표 6] 박물관·미술관과 학교연계교육 시행 후 인식의 변화추이 .....	18
[표 7] 학년 별 단체 프로그램 .....	21
[표 8] 학급 별 단체 프로그램 .....	22
[표 9] 배우Go! 만들Go! .....	41
[표 10] 우리네 풍습 .....	42
[표 11] 우리숨씨 우리문화 .....	43
[표 12] 민화와 떠나는 미술여행 .....	44
[표 13] 우리의 멋을 품은 도자기 .....	45
[표 14] 학습지도안 1차시 - 소망을 담은 그림으로 병풍 만들기 .....	47
[표 15] 학습지도안 2차시 - 소망을 담은 그림으로 병풍 만들기 .....	49
[표 16] 학습지도안 1차시 - 조물조물 우리역사 .....	51
[표 17] 학습지도안 2차시 - 조물조물 우리역사 .....	53
[표 18] 학습지도안 1차시 - 한지와 돌복의 만남 .....	55
[표 19] 학습지도안 2차시 - 한지와 돌복의 만남 .....	57



## ABSTRACT

A study on the linked program of museum education  
and school education

: Focused on the traditional atr education for  
the 3-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Shin Joo Won

Fin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dvisor : Jong-Kyeong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an effective educational plan by analyzing the case of integrated educational program which is linked with the education of museum and art gallery for traditional art education in school curriculum.

The traditional art activities, associated with museum and art gallery in school curriculum, provide the direct opportunity to experience cultural inheritances through relics of the past. Also, it implants new perspective on traditional cultural inheritances and agitates attention to a traditional sense of beauty, inherent in culture. Through this, it forms a deep learning effect with developing the ability to feel and read all sort of things for oneself.

For study of the paper, present state of current art education was analyzed, especially with focusing on actual condition of traditional art education, through various academic papers and reference books. The direction of art education is moving into the appreciation method, centering on experiences as total 8 times of revision were done including revised educational process 2009. It is required to search

for the plan to learn and study with direct experience of seeing and touching.

Therefore, the directivity for advance of traditional art as linking with gradually revitalized museum and art gallery education, was studied.

The educations in two different places were mainly referred for the linked program with school curriculum and museum and art gallery education. Through the analyzed cases of the linked program, it is found that constant education is important to integrated education and it is needed to be done with pre- extra curriculum. Furthermore, the educational plan for museum and art gallery educational program was looked into as extending the educational program of museum and art gallery to the study, linking with exhibition and learning during vacation.

Because the success or failure of traditional art cultural education depends on the instructor-learning method which is about how to teach and study, it is expected that much more educational proposals can be established in the result of active study on the linked education of museum and art gallery education and art education.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술 문화는 어떤 시대나 민족에게 삶의 기록이자 시대의 거울이기 때문에 미술 문화를 통해 같은 시대의 정신과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삶의 모습을 나타내어 볼 수 있다. 또한 감상자로 하여금 만든 이의 내면세계를 읽고 바라봄으로써 또 다른 감동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 민족 고유의 가치관, 종교관, 행동양식 등이 스며있는 전통 미술 문화에는 우리 민족의 자연적인 삶을 구가하는 생활방식과 정신성이 본바탕에 내재되어 있으며 절제, 담백함, 은은함, 평범함 등의 자생적 미의식이 담겨있다. 이런 미의식들은 우리 민족의 잠재된 사상을 그 뿌리로 두고 있음으로서 한 시대나 사회의 정신과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되어 기록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학습하는 자료로서도 그 가치가 높다. 전통미술은 특히 민족의 삶과 열이 깃들여 있는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르쳐야할 당위성이 있다.

문화적 역량이 국가의 힘으로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오늘날, 각 지역 전통 문화의 중심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박물관을 학교 교육에서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학교 교육에서 박물관을 연계한 전통 미술 활동은 과거의 유물을 통해 문화 유산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며 문화 속에 내재된 전통 미의식에 대한 주의력을 환기시킨다. 이를 통해 사물에 대해 스스로 느끼고 읽어내는 능력을 계발하여 깊이 있는 학습효과를 형성시킨다.

초·중등 미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많은 내용들이 동·서양의 현대미술과 근대미술, 테크놀로리아트, 비디오아트 등 매우 다양한데 특히 테크놀로지가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학생들은 이 새로운 미술 문화와 매체에 익숙해져왔다. 그런 교육으로 인해 전통 미술이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있고

따라서 전통 미술은 점점 접하기 어려워지고 낯선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sup>1)</sup>

이번 논문에서 박물관·미술관 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 초등학교 3~4학년을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교육은 학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인 만큼 학생들의 초기발달을 위한 교육이 중요시 되며 필수적이다. 3학년은 미술교과로서 미술을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학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3~4학년이 학습의 출발점에 있는 아이들로서 보다 직접적인 교육인 박물관·미술관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주고 싶다.

초등학교 교육의 현실도 교실에 앉아서 다양한 미술작품과 유물을 책으로만 접할 수 있는 교육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방송과 책을 통한 경험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향상시켜주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박물관·미술관 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전문가의 눈높이 설명을 함께 듣는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통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창의력뿐만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새로운 여가 활동에 동기부여가 되며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서로의 의견과 감상평을 교류함으로써 사고력과 표현방법능력, 자신감 또한 발달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미술교육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그 중에서도 전통미술 교육의 실태를 중점으로 두었다. 또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교육과 연계하여 전통미술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조사해 보는 것으로 연구를 계획했다. 그리하여 이 두 교육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

1) 이성도, 『전통미술 문화교육』, 미진사, 2005.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과서와 학교교육현장에서 다루는 전통미술교육의 대해 살펴 본 후 박물관·미술관과 학교교육의 연계프로그램 사례에 대해 분석해 본다.

둘째,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역사와 역할에 대한 문헌자료를 통해 이론적 내용을 고찰하고 학교와 연계하는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연구한다.

셋째, 본론의 제1절과 제2절의 연구를 바탕으로 통합교육의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을 도출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교육의 실태에 관하여는 미술교육학회의 간행물을 통하여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을 참고자료로 연구를 실시한다. 그리고 박물관 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학술자료는 문헌자료와 선행 연구들을 참고로 한다.

또한 박물관·미술관과 학교통합교육으로 인한 효과적인 전통미술 교육프로그램은 학술자료와 관련서적을 분석하여 살펴본다.

이상과 같이 문헌연구, 실태 분석, 학술자료 및 관련서적을 통하여 민족의 사상과 고유의 가치관, 행동양식 등이 스며있는 전통미술문화에 대해 고찰해보고, 전통미술의 실재를 품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교육의 연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 방안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 제2장 본론

### 제1절 미술교육에서 전통미술 교육의 실태 및 선행연구

#### 1.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교육의 실태

미술교육에 있어서 고민해보아야 할 것은 왜 미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가, 왜 학생들에게 미술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더불어 미술교육을 통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미술교육은 ‘미술’과 ‘교육’이 만나 결합했으므로 이 두 개념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술이란 용어는 매우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이며,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현재도 변화하고 있는 언어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 속에서 공통된 요인을 끌어내어 다시 정의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미술은 공간을 수단으로 하여 내면을 표현하려는 공간예술이자, 조형을 방법으로 하여 내면을 표현하려는 조형예술이며, 시각매체를 통해 인간 내면의 감정이나 느낌, 정서 등을 시각적 매체로 표현하는 시각예술이다. 이러한 미술의 정의에서 인간의 내면은 표현주체와 연관되고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표현방법과 연관된다.<sup>2)</sup>

이와 같은 미술의 개념이 현시대에는 그 범위가 굉장히 폭넓고 다양해져 시각예술이라는 미술의 정의마저 재정의 되어야 이해가 가능할 때도 있다. 미술교육이란 미술이 교과로 채택되어 지속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어느 곳에서든 미술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술학원, 사회단체 미술프로그램, 미술연수, 미술센터의 미술활동, 박물관 교육, 미술관 교육, 텔레비전 광고, 도로나 건물의 선전광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미술교육을 들 수 있다.

현대 미술교육은 생산자 중심 교육에서 소비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것은 표현 위주에서 감상위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점차 미술이해와 감상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전성수, 『교과교육학&미술교육학』, 한국학술정보, 2006, pp.150~151

감상이란 미술을 생활 속에서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길러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가꿀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에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감상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 학생들이 박물관·미술관 등을 학기 중 적어도 1회 이상 견학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재량 활동은 교과외의 심화·보충 학습보다는 창의적 재량활동에 중점을 두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수업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 장소에서 교육함으로써 기존 교육과정과 교과외 틀에서 다루지 못하는 교육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틀이 되고 있다.<sup>3)</sup>

#### 1) 현행교과서에 수록된 전통미술교육

가장 최근 개정 된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학습내용의 범위와 한계를 정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교육과정 대영역이 미적체험에서 체험으로 변화된 것이다. 하위 영역은 <표 1>과 같이 개정되었다.

둘째, 지도상의 유의사항으로는 먼저, 인간의 지각과 소통에 관한 체험을 다양하게 시도하기 위해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비롯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의 연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감상 활동에서 미술사와 미술 비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장의 다양한 연구와 실천적 학습 방법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내용으로써 특히 미술사에 대해 과거에서와 같이 미술사조 중심의 암기 교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술 비평 역시 용어로 인한 수업이 어렵고 딱딱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학생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업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영상 미술과 컴퓨터 활용을 통한 미술 등에 대한 내용은 수업 방법의 실질적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교사연수가 필요한 부분이다.<sup>4)</sup>

3) 이숙희, 『박물관 견학을 통한 전통미술 감상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1

<표 1>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주요 활동

영역	내용	3~4학년
체험	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대상을 탐색하여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기</li> <li>① 자연물과 인공물을 다양한 감각으로 탐색하기</li> <li>②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한 느낌과 생각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타내기</li> </ul>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속에서 시각 문화를 찾아보고 탐색하기</li> <li>①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미술 찾아보기</li> <li>②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각 이미지 탐색하기</li> </ul>
표현	주제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기</li> <li>① 자유로운 발상을 통한 다양한 주제 탐색하기</li> <li>② 자유롭게 주제 표현하기</li> </ul>
	표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재료와 도구, 표현 방법 탐색하여 표현하기</li> <li>① 기본적인 재료와 도구의 사용 방법 익히기</li> <li>② 재료와 도구에 따른 표현 방법 탐색하여 표현하기</li> </ul>
	조형요소와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표현하기</li> <li>① 주변 환경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 탐색하기</li> <li>② 조형 요소와 원리 활용하여 자유자재로 표현하기</li> </ul>
감상	미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배경에 흥미와 관심 갖기</li> <li>① 미술 작품의 배경에 관하여 알아보기</li> <li>② 주변에서 전통 미술 문화를 찾아보기</li> </ul>
	미술비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에 흥미와 관심 갖기</li> <li>① 기본적인 용어 이해하기</li> <li>②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설명하기</li> <li>③ 작품을 감상할 때의 올바른 태도에 관하여 알아보기</li> </ul>

4) <http://blog.naver.com/homebell5013?Redirect=Log&logNo=20203594525>



대개 초등 미술교과서에서 전통미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단원은 2~3개이다. 전통미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단원은 수묵화와 서예 두 가지 분야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재료와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현대적 표현 사례까지 폭넓게 다룬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통미술의 감상영역 부분은 전통미술만 다룬 것이 있고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서양미술)을 비교해서 다룬 것이 있다. 전통미술과 관련된 단원은 주된 소재나 주제를 활용한 단원, 단순 사례로만 활용한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미술이 중심소재는 아니지만, 주된 소재로 활용하는 단원의 예로써 동등한 소재의 비교나 소재 활용사례 등이 수록되는 경우가 있고, 소재를 단순한 사례로 활용하는 단원의 경우 단지 한 두 장의 참고 도판이 수록됨으로써 단원의 주제와 상관없이 활용되는 경우이다.<sup>5)</sup>

<표2>에서 나타나듯이 미술교과서의 전통미술 감상 작품의 약 75%가 박물관에 소장된 감상 작품이다. 또한 <표3>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미술교과서를 살펴보면 박물관 견학을 통해 전통미술을 감상함으로써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전통미술교육과 박물관은 감상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도판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효과적으로 전통미술 감상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견학을 통한 감상지도가 필요하다.<sup>6)</sup>

<표 2> 학년 별 감상 작품 분석표

학년	전통미술 감상 작품 수	박물관에 소장된 전통미술 감상 작품 수
3	24	19
4	15	12
5	13	9
6	9	6
총계	61	46

5) 이성도, “2007 개정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의 전통문화에 관한 내용 분석 연구”, 『미술교육논총 2012 제26권 2호 29-56』, pp.36~37

6) 이숙희, 전게서, p.15

<표 3>학년 별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중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

학년	교과서 전통미술 감상 작품 중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
3	모견도, 서당, 기마인물형 토기, 연꽃도깨비벽돌, 오리토기, 옛 글씨, 민화, 저고리와 치마, 복주머니, 나막신, 비단신, 족두리, 비녀, 한복
4	민화, 옛글씨, 연적, 부채, 백자, 빗살무늬토기, 천마도, 석굴암 본존상, 고려청자, 금관, 나전칠기
5	책거리, 수저집, 보자기,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분청사기, 흑회식 도자기
6	옛 글씨, 민화, 다식판, 십이지상, 하회탈, 실첩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 속에 전통미술과 관련된 단원 수는 적으나 여러 단원에서 전통 회화와 관련한 미술품을 제시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학습 활동 중에서 전통 재료를 선택하여 작품 제작을 하도록 되어있다. 전통 미술의 기초적인 이해 내용 중에서 초등학교 수준에서 지도가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7)</sup>

<표 4> 영역별 전통미술의 이해 교육

영역	전통미술의 교육 내용	전통미술의 이해 교육 내용
미적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미술품에 나타난 선과 형의 아름다움을 찾아본다.</li> <li>전통미술품에 나타난 색의 아름다움을 찾아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품에 나타난 선의 굵기, 속도, 농담을 찾아본다.</li> <li>전통 미술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과 색을 찾아본다.</li> <li>미술품에 나타난 상징성을 찾고 정신적 가치를 느껴본다.</li> </ul>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미술 재료를 활용하여 보고 느끼고 상상한 것을 자유롭게 나타낸다.</li> <li>전통미술 재료 및 기법의 기본적인 표현방법을 알고 나타낸다.</li> <li>전통미술 재료 및 도구의 기본적 사용법을 알고 바르게 사용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먹과 물의 양에 따라 농담이 달라짐을 이해한다.</li> <li>모필의 성질을 알고 표현해본다.</li> <li>수묵담채의 느낌을 살려 표현한다.</li> </ul>
감상	우리고장의 미술품이나 우리나라의 미술품에서 좋은 점, 재미있는 점을 찾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품에 대한 주제표현이 다양함을 찾아 언어로 표현해본다.</li> <li>작가의 삶에 대해 흥미를 갖는다.</li> </ul>

7) 박선미, 『초등미술교과에서 전통미술의 이해 지도에 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38

전통미술이라는 특정영역은 교과서 전체 구조 속의 몇 개의 단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체계 속에서 전통미술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미술의 내용이나 특징은 보편적인 내용체계와 그 특징을 이해하면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통하여 미술교과서의 보편적인 특징이 곧 전통미술의 특징이 되는 것이다. 교과서속 전통미술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와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8)</sup>

첫째, 대부분의 전통미술 단원 구성체계가 매우 비슷하다.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편집이 이루어지지만 필자들이 새롭게 해석하는 개성적이고 다양한 시각에 따라 보다 참신한 내용구성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둘째, 전통미술 내용구성방식이 종합적이라는 것이다. 전통미술의 모든 단원을 통합하여 수록하는 것보다 단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타 교과와의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도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섬세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단원의 특성, 수업 시수, 교육 환경, 타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의 조건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술교과서는 도판을 기본으로 구성되며 전통미술 단원의 체계 또한 도판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은 시각언어로서 이미지가 곧 언어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한 단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단원의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내용의 글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지문과 도판과의 연관성을 높일 때 학습자는 스스로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내용구성이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내용의 글과 도판의 상호관계 속에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서술 체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전통미술문화를 통합하여 한 단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수묵채색화와 서예 그리고 감상 영역을 강조하여 단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통미술 작품을 단순히 제시하기보다 상호 연속적 관계 속에 완성도 높은 단원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미술교육에 있어서 우리 전통미에 대한 지각과 인식의 문제가 그 중요성만큼이나 논의 또한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다. 비단 미술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

8) 이성도, 전게서, pp.49~50

문화 전반에 걸쳐 서구의 것은 늘 좋은 것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이성적이라는 것이 앞섰다.

최근에는 다문화 교육과 DBAE<sup>9)</sup>의 영향으로 우리 전통 미술의 중요성 및 교육적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다문화 미술 교육에 대하여 각 나라 간의 다각적인 연구가 진척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외국 것만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미술 교육이 동양철학 및 전통 미의식의 원리와 의미, 내용을 추출하고 적용하도록 힘써야 한다.<sup>10)</sup>

전통문화와 관련한 내용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교육으로서 의미를 더 많이 갖는다. 이는 미술을 학습하는 학생들의 기초조형능력을 키우고 미적안목을 높여 전통미술문화를 즐기고 활용하는 교양 교육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미적 감수성과 감각뿐만 아니라 조형능력, 인지적 능력까지 함양하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유롭게 전통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학교 안에서도 역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내용체계, 교수·학습방법도 새롭게 하여 기존의 교육과정을 모토로 하되 더 발전된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sup>11)</sup>

---

9)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는 1980년대 초부터 활발히 연구된 새 개념의 미술교육 운동으로, 미술제작, 미학, 미술사, 미술비평이라는 네 가지 학문영역에 기초한 미술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김정희 외,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3, p.63

10) 최성조, 『전통미술의 미의식 함양을 위한 감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pp.39~40

11) 이성도, 전게서, p.52

## 2)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미술교육

전통미술교육에 대한 강조는 세계화로 인한 무한 경제 사회 속에서 문화의 단일화 현상과 이에 따른 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퍼짐에 따라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문화적 지향의식이 높아지면서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전통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세계화과정 속에서 문화의 정체성이 와해된다는 우려를 갖는 제 3세계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과 대응전략으로 전통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7차 미술교육과정은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전통미술을 부각시키고 이를 기초로 세계문화를 이해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우리 문화유산의 독창적이고 우월한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계승·향상시키기 위해 전통미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찾아내어 교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나라 전통미술이나 풍습, 명절 등 고유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둘째, 창의성지도나 작품을 감상 할 때 전통 문양이나 색채 등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셋째, 미술작품 만들기 수업에서는 전통문양이나 형태를 현대에 맞게 변화시켜 보도록 지도한다.

넷째, 전통 미술의 정착을 위해서는 순수미술과 함께 생활미술에도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전통미술품이나 생활용품 제작, 각종 민속놀이를 통해 민족의 정서와 생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sup>12)</sup>

전통미술의 교수-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감상영역을 중심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상영역은 미술품에 대한 관심과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목표로서 미술비평과 미술사로 구성되었다. 미술 비평은 각각의 작품 감상을 하면서 자기 작품이나 친구 작품을 통해 느낀 솔직한 감

12) 김형숙, 『전통미술교육과 박물관』, 미술교육연구논총 Vol.14(2), 2003, pp.26~27

상평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 감상내용을 지도할 때 발표나 토론수업, 작품 감상문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술사에 대한 내용은 미술품 감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내 미술품 감상, 지역 미술품 감상, 외국 미술품 감상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미술에 대한 이해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징을 살펴보고, 표현의 차이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미술 비평과 미술사 교육을 통해 작품을 보는 능력을 기르고, 시대별 양식별 미술 작품의 변화흐름을 이해함으로써 나아가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까지 넓히는데 중점을 둔다.<sup>13)</sup>

우리나라 미술교육계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다문화 중심의 미술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부터이다. 그간 한국의 미술교육계에 만연한 서구 미술일변도의 교수 방법에 변화를 주고 전통 미술교육을 구체적인 커리큘럼으로 조직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서구에서 일기 시작한 다문화 미술교육의 이론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전통미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강조는 다문화 미술교육과 관련하여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전통을 강조하는 미술교육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전통미술교육을 행할 때, 전통의 강조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되는데, 여기서 전통이란 과거의 고정불변한 유산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그를 기초로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삶의 양식과 문화에 있어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중적 정체성을 갖는 이 시대에, 과거의 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자국의 정체성을 증진시키겠다는 논리는 과거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근대적 방식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란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토대로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며,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는데 발전이 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즉 전통문화는 과거의 고정된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문화로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13) 이미지, 『박물관·미술관 감상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02, pp.12~13

전통미술교육의 의미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다원주의적 사회와 문화 속에서 타인의 삶의 방식도 인정하여 타인을 지배의 관점에서 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통미술교육은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민족문화와 전통을 강조하고 타문화와 경쟁적인 대립구도를 설정한다. 타인과의 공존보다는 지배와 우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미술교육은 자문화의 독창성과 장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한계점도 인지함으로써, 타문화와의 창조적인 융화를 위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전통미술교육은 새로운 문화를 끊임없이 이해하며, 이것을 우리문화 속에서 발전된 문화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전통을 강조하는 미술교육이 민족적인 색채가 강조되어 편향된 문화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전통문화가 한국적이라는 이름하에 형식적인 면만 강조하는 정형화된 현상은 극복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전통미술 교육을 위해서는 전통미술이 만들어진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현재 우리 삶의 맥락과 상황과 연관시켜 재창조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통미술교육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괴리된 피상적인 연구에서 벗어나다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각문화교육 방법론을 실천할 수 있다.<sup>14)</sup>

---

14) 김형숙, 전계서, 2003, pp.28~29

## 2. 박물관·미술관과 학교교육 연계프로그램 선행연구 분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 시범 연구학교로 지정된 서울 신목초등학교(www.sinmook.es.kr)와의 1년간의 학교연계교육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박물관과 학교연계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지역 박물관인 광주국립박물관의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1) 덕수궁근대미술관과 학교연계교육프로그램 선행연구 사례

#### (1) 프로그램 설계

박물관·미술관과 학교연계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기에 앞서 사전 요구조사로 교사 및 학생설문을 시행하였다. 교사 설문은 서울 신목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실태 및 교사의 요구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학습자에 대한 이해 및 프로그램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서울 신목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에 가기 전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서울 신목초등학교 교사의 91%가 최근 1년 간 박물관·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관람 전 사전학습과, 관람 후 사후학습을 실시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전학습은 71%가 실시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따른 교육적 효과는 83%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사후학습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3%의 교사만이 ‘있다’라고 대답하여 박물관·미술관을 다녀온 후에 시행하는 사후학습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박물관·미술관에 가기 전 사전수업의 내용에 대해 알기 위한 추가 질문에는 교사 대부분이 박물관에 가서 지켜야 하는 관람예절 및 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소개 교육, 그리고 박물관에 방문하여 무엇을 관람할 것인지 계획하는 정도의 사전수업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교사가 박물관·미술관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작품을 설명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51%의 교사가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였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 교사 대다수가 객관적인 사실 및 작가와 재료 및 기



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어떻게 준비하였느냐는 질문에는 교사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한 조사 및 개별적 탐색, 연구를 통해 준비하고 미술작품을 본 학생들의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하며, 소재 및 재료 등에 관한 질문과 작품제작에 대한 작가의 의도 등을 발표하게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직접 학생들을 인솔하여 박물관·미술관에 갔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질문 하였는데 많은 교사가 불편한 교통편을 호소했고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에게 감상방법을 알려주는 것, 학생들의 작품 및 유물에 관한 이해 부족과 함께 작품 감상의 시간제한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서울 신목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총 126명을 대상으로 덕수궁 근대미술관에 가기 전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작품을 5초 이상 본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9%의 학생이 5초 이상 한 작품을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박물관·미술관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직접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1% 정도의 학생들이 '모른다.'라고 대답하였다.

작품을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 설문문항에는 56%의 학생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학생들이 박물관·미술관에 가기 전 자기 주도적으로 사전학습을 해본 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서 미술관에 가기 전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 문항에 '없다'라는 의견이 71%로 나타나 방문할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관심 및 흥미를 갖게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됐다.

학교에서 박물관·미술관을 다녀오고 사후학습을 하였는지를 알아보려고 미술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작품제작, 시 짓기 등으로 학습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68%의 학생이 '없다'라고 대답하여 사후학습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와 같은 설문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방안이 도출되었다.<sup>15)</sup>

15) 강인에 외, 『박물관교육의 다양성』, 문음사, 2010, pp.230~234

첫째, 현재 박물관·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단편적인 체험학습이나 둘러보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현재의 교육 실태에서는 교사의 지나치게 많은 업무 및 교사 인식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문적인 유물 및 작품에 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기 어렵다. 또한 박물관·미술관과 학교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사를 위한 교육자료 및 연수가 턱없이 부족하며 기관의 사정상 연수를 시행하지 않는 곳과 자료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셋째, 교사 대부분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였을 때 관람을 학년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관람하게 되어 효과적인 교육학습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관람 시에는 반드시 학년별이나 반별로 관람해야 하며 초·중·고학년 별로 관람 시 그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명문화시켜 더욱 많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모형을 설계해야 한다.

## (2) 프로그램 적용 및 결과

교사와 초등학생의 사전 설문조사 시행 후 구체적인 박물관·미술관과 학교 교육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초등학교 3~6학년의 미술과, 사회과, 국어과 교과를 분석하여 교과교육의 목표와 학교연계프로그램에 이를 적용하였다.

이어 박물관·미술관과 학교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교사와 학교 연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교사가 실제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의 사전 연수 및 전시 관람을 통해 직접 교사가 도슨트<sup>16)</sup>가 되어 학생들에게 작품을 설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후 교사가 사전학습 및 사후학습을, 교육담당자가 교사 연수 시행과 사전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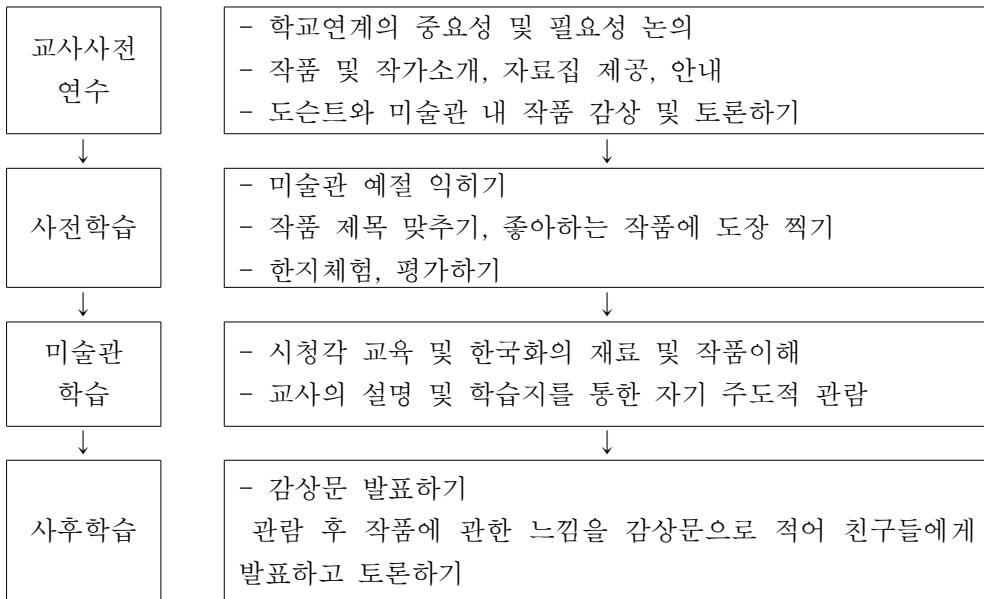
16) 도슨트(docent)는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용어로, 소정의 지식을 갖춘 안내인을 말한다. 1845년 영국에서 처음 생긴 뒤, 1907년 미국에 이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된 제도이다. 일정한 교육을 받고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일반 관람객들을 안내하면서 전시물 및 작가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료를 제공하며 각각 미술관 관람 학습에 역할을 맡아 협력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에 앞서 일차적으로 무엇보다도 전시 및 박물관·미술관과의 연계를 위하여 미술관 몇 곳을 선정하였는데 미술관의 배려로 첫 번째로 덕수궁근대미술관에서 실시하기로 정하였다. 프로그램명은 미술관이야기 ‘재미난 먹그림’이며 총 4일간 진행되었다.

교육대상은 서울 신목초등학교 3~6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박물관·미술관과 학교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의 역할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하여 수차례에 걸친 실질적인 교사 연수를 시행하여 미술관 현장에서 교사가 설명하는 부분을 확대시키고, 학년별로 미술관을 관람하도록 하였다. 미술관 학습단계별 모형은 교사사전연수→사전학습→미술관학습→사후학습의 4단계로 모형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덕수궁근대미술관 학습단계별 모형 설계



이후의 연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 적용 전과 적용 후 교사와 학생의 설문지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박물관·미술관교육과 학교연계교육의 교육적인 효과를 비롯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태도 및 인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서는 제2차 설문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 학생, 교육담당자 등에게 프로그램 평가를 요청하였고, 인터뷰와 관찰조사 및 영상자료를 통해 프로그램의 흥미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표 6> 박물관·미술관과 학교연계교육 시행 후 인식 변화과정

(단위 : %)

항목	설명정도	사전, 사후학습의 효과	교과연계
프로그램 적용 전	51%	53%	-
프로그램 적용 후	90%	92%	96%
증가도	39%	39%	96%

그 결과 덕수궁근대미술관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90%의 교사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박물관·미술관에 가기 전 시행하였던 조사의 51%에서 39%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적당한 관람시간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교사 대부분이 1시간 정도의 관람시간이 대체로 적합하다고 답했으며, 덕수궁근대미술관 교육프로그램과 학교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것을 묻는 질문문항에 96%의 교사가 연계성이 ‘높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사전학습과 사후학습을 통한 학습적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질문을 하였는데, 사전조사보다 실시 여부 및 효과가 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물관·미술관에 가기 전에 행하는 사전교육의 학습효과 및 사후학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교사 스스로 박물관·미술관에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묻는 문항에 96%의 교사가 ‘그렇다’라고 대답해 이번 학교연계프로그램에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서울 신북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총 126명을 대상으로 덕수궁근대

미술관에 다녀오고 나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미술작품에 관한 관심과 흥미 및 관람법 등 학생들 인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작품 감상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번 덕수궁근대미술관에서 한 작품을 5초 이상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하였는데 109명의 학생들이 5초 이상 작품을 보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설문조사 98명에서 11명이 늘어난 것이었다.

앞으로 한국화를 감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91명의 학생이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 감상법을 묻는 질문에는 무엇을 그렸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는지, 또 먹의 농담에 따라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등의 대답이 나타났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제목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93명의 학생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전 설문조사의 51명에서 무려 42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 박물관·미술관에 방문했을 때의 올바른 감상법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을 하였는데 115명의 학생들이 작품 감상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대답함으로써 이번 프로그램이 이뤄낸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에 가는 것이 ‘재미있다’라는 의견이 106명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덕수궁근대미술관 학예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전 학습과 교사의 사전연수 및 교과연계내용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박물관·미술관은 학생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적합한 학습의 장으로써 박물관·미술관과 학교의 지속적인 통합교육이 요구되며 꾸준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학생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sup>17)</sup>

---

17) 강인애 외, 전게서, pp.234~239

## 2) 국립광주박물관과 학교연계 프로그램 사례

국립광주박물관은 광주전남지역의 전통문화를 조사연구·전시교육·보전관리하기 위해 1978년 12월 6일에 개관하였다. 한국 전통건축으로 지어진 전시관은 선사와 고대문화를 시대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전시실과 전통예술을 주제별로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로 마련되어 있다. 광주지역의 하나밖에 없는 국립박물관으로서 다양한 계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의 전시구성 및 교육활동은 다음과 같다.

국립광주박물관의 전시실은 크게 상설전시실과 야외전시실로 나누어져 있다. 상설전시실은 선사실, 고대실, 고려도자실, 조선도자실, 신안해저유물실, 불교미술실, 서화실로 구성되어 있고 야외전시실에는 박물관 정원을 활용하여 여러 작품들을 균일한 위치로 이전·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전시물로는 전남지방에서 출토된 구석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의 유물과 고려시대부터 신안해저유물까지의 도자기유물, 전남지방의 불교미술품, 조선시대와 근대기의 호남회화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sup>18)</sup>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와 야외전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행사도 하고 있는데 가족, 어린이, 청소년, 일반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으로 이번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초등학교 및 기관 단체와 연계하는 교육 박물관은 내 친구 프로그램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8) 손자영, 『초등미술교육에서 국립광주박물관을 활용한 감상과 표현 연계 프로그램 적용 사례』,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16

(1) 프로그램 설계<sup>19)</sup>

- 기 간: 2015년 2월~12월 / ※ 세부일정은 신청기관과 별도 협의
- 시 간: 100분~120분(학습 내용에 따라 시간 변동 있음)
- 대 상: 초등학교 학년(300명 내외) 및 학급·동아리(40명 내외) 단체
- 장 소: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및 교육관
- 참가신청: 초등학교 단체 담당 선생님 전화 협의
- ※ 프로그램 및 일자 선택하여 신청
- 참가문의: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 / 062)570-7053, 7068

<표 7> 학년 별 단체 프로그램

구분		내용	시간	장소
학년 단체 / 최대 300명 / 기관 선택	박물관 탐험대	관람예절, 박물관 탐험 안내 및 준비	20분	대강당
		워크시트를 활용해 스스로 유물을 찾아 문제를 풀어가는 셀프가이드 방식의 탐험	50분	전시실
		셀프가이드 방식 탐험이 끝난 후 함께 모여 문제를 풀어봄	30분	대강당
	박물관 학예직과의 대화	박물관 학예직에게 듣는 우리 문화 이야기	60분	대강당
		박물관 직업 이야기	60분	
	영상으로 보는 우리문화	전통 문화 및 역사물 관련 영상 감상	60분	대강당

19) 광주국립박물관 홈페이지, [http://gwangju.museum.go.kr/sub6/sub1\\_view.do?boardId=G1277363934015&idx=8315&type=&page=](http://gwangju.museum.go.kr/sub6/sub1_view.do?boardId=G1277363934015&idx=8315&type=&page=)

<표 8> 학급 별 단체 프로그램

구분		내용	시간	장소
학급 단체 / 최대 40명 / 기관 선택	선사· 고대문화	스토리텔링 및 관련 체험학습 : 토기, 청동기, 화살촉, 굽은옥, 기와 등	각 120분	전시실 / 체험 학습실
	농경문화	스토리텔링 및 관련 체험학습 : 반달돌칼, 목제품, 비단, 발화도구, 칠기, 현악기 등		
	불교미술	스토리텔링 및 관련 체험학습 : 쌍사자석등, 불상, 범종, 탑, 불교 문양 등		
	도자	스토리텔링 및 관련 체험학습 : 상감청자, 분청사기, 연적, 도자 문양 등		
	유교문화	스토리텔링 및 관련 체험학습 : 오침안정법 옛 책, 현자총통, 석탄금 등		
	서화	스토리텔링 및 관련 체험학습 : 초상화 액자, 사군자 병풍, 화첩 등		
	특별전	스토리텔링 및 관련 체험학습 : 청화백자, 아시아 사유, 담양, 칠기 등		

전남 신안은 예로부터 우수한 토질을 갖춘 지역적 특성 덕에 수많은 가마터에서 많은 도자를 생산하였고 그리하여 신안 앞바다에서 건진 다수의 유물이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어있다. 또한 남종화의 거장인 소치 허련의 영향으로 다수의 회화작품 또한 전시되어있다.

하여 국립광주박물관은 특히 공예영역과 회화 영역 전시가 주를 이루고 교육 프로그램도 도자기 빚기 체험과 문자도 따라 그려보기, 한지공예 등이 행해지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 본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보여준 결과는 참여 학습자들의 높은 만족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결과의 전제조건은 학교 교과과정과 박물관 전시품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설계, 적용된 교수-학습과정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제되었던 조건은 학교와 박물관·미술관 이 두 조직 간에 이루어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 지원과 도움이었다. 곧, 처음부터 두 기관이 협력하여 커리큘럼 활동을 계획, 개발하는 데 참여하여 양측 간에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의 주인의식을 느끼고 진행하였다. 물론 이때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일종의 연수프로그램의 존재이다. 교사로서는 박물관 연계를 통한 학교수업시행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어떤 학습 자료를 박물관이 지니고 있으며, 어떤 구체적 작품이나 전시물이 있으며, 이들을 어떻게 학교 커리큘럼과 연계하여 학습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인가, 비형식 학습이란 어떤 특징을 지닌 것인가 등)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박물관·미술관 교육담당자는 학습에 대한 이해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미리 전제되어야 양쪽의 참여를 통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sup>20)</sup>

광주 국립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일시적인 교육에 그치는 점이 아쉬웠다. 물론 학교연계프로그램이 있지만 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연계교육을 통해 학교와 박물관의 통합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20) 강인애 외, 전게서, p.244

## 제2절 학교교육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연계활동과 전통미술교육

### 1.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역사와 역할

#### 1)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역사

공공 박물관·미술관(이하 박물관)이 생긴 이래 교육은 박물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공공 박물관은 공공의 교화와 오락을 위해 여러 가지 대상을 전시한 곳이라 알고 있듯이 18세기 산출물이며 19세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박물관이 생겨나면서 중요한 공공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시민들의 복지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건립된 박물관은 국가의 형성과 함께 발달해왔다.

19세기 초반 새롭게 문을 연 박물관들은 대중에 제한적인 허용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점점 커지는 정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박물관들은 제국의 승리를 전시했으며, 식민정책, 개인 여행자들이나 점차 대중화된 고고학적 발굴에 따라 유럽으로 가져온 진기한 물건과 보물들을 전시하였다. 또한 박물관들을 통해 사람들은 부국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과학과 산업이 삶의 형태를 바꾸었으며, 정부는 사회적 서비스와 교육을 위한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박물관은 대중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가운데 한 유형으로 인식되었다. 박물관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근대 삶의 가치를 음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박물관은 보건 교육을 위한 공공 캠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전시를 열었으며, 산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과시하고 대중의 오락을 위한 진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전시하였다.

다양한 수준과 분량의 설명문, 대중을 위한 강좌와 이벤트, 학생을 위한 특별 강좌와 프로그램, 교육적인 전시와 일반인 혹은 특별한 관람자를 위한 미술관 내부 혹은 외부 프로그램이 생기며 박물관은 설립이념으로 학술연구와 사

회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sup>21)</sup>

서구의 박물관역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 시기가 늦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1908년 조선 왕실의 보관품을 수장, 관리하기 위한 이왕가박물관을 설립함으로써 근대적 박물관의 시초를 알렸다. 이어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이 시작된 것은 1954년 경주박물관의 박물관학교로 보고 있다.

이후 197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 특설강좌를 열어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근대적인 교육은 1980년대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며 박물관·미술관의 주된 업무를 교육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sup>22)</sup>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본격적으로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학교교육의 변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산업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학교교육이 현재의 모습처럼 체계화되지 않았기에 학습이란 일상적인 생활과정 중에 부모를 통하거나 혹은 직장이나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깨우쳐 배우는 것으로 이해하곤 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학교교육은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학교교육은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더 이상 학교교육만으로는 사회에서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과거의 사회에서는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의 수명이 수백 년 이상 유지되었지만, 미래의 사회는 빠른 속도로 지식과 정보가 변화되어 지식정보의 습득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학교교육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대안적 교육환경이 필요하였고 그 대안으로 비형식 교육의 대표적인 예인 박물관교육이 제시되었다.

박물관 교육은 관람객이 박물관을 입장하면서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박물관교육은 그 대상, 목적, 교육 방법에서 학교교육과 차이가 있다. 박물관이 학교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은 실물 전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물은 책이나 교과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21) George E. Hein 저\_안금희, 김혜경 외 2명 역, 『박물관교육론』, 학지사, 2015, pp.19~21

22) 강인애 외, 전계서, pp.204-205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형성하고 학교와는 다른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온다.<sup>23)</sup>

## 2)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역할

박물관·미술관(이하 박물관) 교육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과거에 박물관은 사회 교육적 측면에서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단지 프로그램의 개수를 늘리거나, 운영자 혹은 제작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박물관 교육은 학습자에 초점을 두어 감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중심을 둔다. 즉, 감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평생교육의 경향이 강하다.<sup>24)</sup>

뿐만 아니라 교육 대상에도 변화가 있다. 노인을 위한 교육, 여성을 위한 교육 혹은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처럼 교육대상에 따라 분류된 프로그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세분화된 대상층을 일반인으로 단일화하여 프로그램의 성격에 중점을 두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특정계층,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외국인의 경우 감상자의 편의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평생 교육의 핵심적 가치이자 문화교류의 중심이다.<sup>25)</sup>

박물관의 교육방식은 유물관람 중심에서 체험 중심으로 바뀌고, 전문가 중심에서 관람객 중심으로, 학예사 중심에서 교육담당자 중심으로 박물관 교육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박물관은 수직적으로는 하나의 역사를, 그리고 수평적으로 가정·학교·사회를

23) 강인애,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적 교육환경으로서의 박물관교육의 가능성』, 문음사, 2011, pp.15~16

24) 이수진, “박물관 교육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교육적 의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2014, p.78

25) 최중호, “박물관학에서 바라보는 문화교육”, 『서울:문화예술교육연구』, 2006.

아우르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박물관 교육은 교육의 목적, 대상, 내용, 방법에 있어서 다각적인 성향을 보 이면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 고유한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sup>26)</sup>

박물관의 장점은 감상자에게 실물을 직접 보고 만지며 느끼는 교육의 기회 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교육은 문화의 새싹이자 소중한 희망인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경험을 통해 문화의 주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현장체험을 통해 상상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며, 문화의 중요 성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문화인으로 성장하게 돕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박물관 교육은 미술사적 의미가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자연과 일 상의 대상, 평범한 대상을 객관적으로 실체화하면서 교육적인 가치를 감상자 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교육 프로 그램의 구성은 이러한 박물관 교육의 장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중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박물관의 교 육 활동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들을 위한 박물관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이 직접 물체를 만져보고 체험하도록 구성된다. 이렇듯 박물관의 학습은 창의적, 체험적, 사회 적, 놀이적, 모험적 요소를 가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전시와 프로그램의 주제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체험적 이치 를 다루어 궁극적으로 사회와 환경을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존 듀이(John Dewey)는 “실제로 체험하면서 배운다(Learning by doing)” 라는 진보적인 주장 아래 1940년대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에 큰 영향을 끼쳤 으며, 어린이박물관들은 이러한 개념을 응용하여 어린이들이 실제로 만지고 조작할 수 있는 전시품들을 고안해냈다.

결론적으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이란 박물관의 교육담당부서가 제공하여 운 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이라는 문화 공간을 통해 박물관교육 목표를 이 루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 으며, 다른 사회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같이 총괄적인 성격 을 지니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

26) 이수진, 전계서, p.79

첫째, 박물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식 정보의 제공을 통해 학습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박물관교육을 평생교육적인 면에서 이해한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전체 연령층으로 확대해야 하며, 각 대상층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 방식 및 과정의 비정형성, 기관에 따른 융통성, 학습의 시·공간적 제한이 없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여 박물관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박물관이 갖는 독특한 비형식적인 학습 환경을 체험하고 학습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무엇보다 비형식적 학습은 주체적인 평생학습의 태도를 길러주며 틀에 박힌 교육을 탈피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둘째, 여가 활용에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형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박물관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박물관 관람을 유도하고 제공해야 한다. 하여 박물관방문은 주로 여가를 이용한 방문이라는 특성을 파악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호기심으로 방문한 박물관에서 교육이라는 장르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즐겁고, 즐겁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증진되는 이상적인 교육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박물관은 실물기반학습의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박물관의 특성은 사물을 수집하고, 이를 주제로서 연구, 전시, 교육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박물관교육은 소장품과 전시작품 자체가 교육의 주제이자 재료이며, 직접 체험하며 이를 토대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는 구별되는 박물관교육의 특징이다. 즉, 박물관교육의 이론과 방법은 바로 실물기반의 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의 소장품과 전시작품 중심으로 시행함으로써 박물관은 특색 있고 고유한 교육적인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sup>27)</sup>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체험학습을 7차 교육과정의 주요 학습으로 마련해 놓았지만 박물관에서는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약제를 마련해 놓았지만 그것을 지켜 방문하는 학교도 드물뿐더러 학교와 박물관 사이에 학습프로그램과 교사교육과 같은 학습을 위한 제반 여건도 부족하고 박물관의 학습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다.

27) 김종대 외, 『박물관교육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2010, pp.45~48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나의 예로 박물관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들 수 있다. 이는 박물관 교육담당자의 몫이 되겠지만 박물관을 교육적 장소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현실적이며 유익한 방법이다.

미국의 한 학교에서는 박물관 교육을 학생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도와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사의 처지가 되어 전달하는 방식의 재학습을 체험하고 봉사도 한다. 학습과 경험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학습과 현장학습은 같은 형태를 말하는 두 가지 다른 이름이다. 현장에서 체험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문화교육은 직업교육의 기초를 마련한다. 우리 교육의 문제가 직업에 대한 탐색이 없이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작 직업을 택해야 할 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친다. 이것은 많은 사회비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봐도 시간과 물질의 낭비를 초래한다.

박물관 봉사활동으로 박물관의 발굴과 수집을 위한 학예연구사의 업무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박물관 관련 직업에 대한 제대로 된 체험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전준비 없이 박물관을 단순 견학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중고생들의 캠프 등에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박물관을 단순히 견학을 위한 장소가 아닌 자신의 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제도는 박물관안의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형태의 학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의 목표는 교육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야 한다. 교육의 전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효과는 반감한다. 그리고 협동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실을 보더라도 전시내용이 다양하다. 각 전시물마다 담당학예연구사들이 있고 그 연구사들은 수집과 발굴, 전시를 위한 각 과정이 각기 조금씩 다르다. 유물을 다루는 방식도 다르고 그것에 대한 여러 해석도 다를 수 있다. 또한 자연사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의 전시물과 전시형태도

매우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박물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다면 박물관이 관람자와 의사소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은 이러한 박물관의 운영체제처럼 한 분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sup>28)</sup>

## 2. 박물관·미술관 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범위는 요즘 들어 성행하는 문화유산 답사, 박물관 대학, 박물관 강좌 등 일반인 상대의 사회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박물관 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 교육에서의 박물관 활용 연구나, 교사양성 교육에서의 박물관 교육 분야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박물관 교육은 교육의 기본 개념 정립 문제에서부터 논의가 필요한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물관을 통해 우리문화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외국 문화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배워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자연과 다른 나라의 자연에 대해, 그리고 우주의 생태와 현상에 대해 체험하여 광범위한 이해의 폭을 가지도록 돕는 것으로 교육적 갈피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문화·인간·자연을 직·간접으로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은 제도교육이 끝끝내 따라갈 수 없는 박물관 교육의 장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도 박물관 교육을 강조할 필요성에 대한 가치와 연계지어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주입식 학습훈련이 되어버릴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박물관 교육의 가치는, 미래의 주인이 될 세대에게 진정한 문화주인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박물관 교육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우리 교육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박물관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법, 그리고 전문가 양성 체제 등의 문

28) 오명숙, 『박물관·도서관·학교는 하나다』, 너른들, 2004, pp.29~33



제가 구체화될 수 있고 방안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이 개인으로나 집단으로 국내의 박물관·미술관을 찾아다니는 박물관 기행이 익숙하게 될 것이다. 박물관·미술관을 즐겨 찾는 교육기행 풍조가 활성화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욱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sup>29)</sup>

19세기 본격적으로 박물관교육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며 초기에는 박물관 자체 내의 교육적 기능이 언급되었으나 점차 학교와 박물관 연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 박물관 교육의 경우도 20세기에 들어 유물이나 작품의 감상을 비롯하여 교육의 중요성이 또한 강조되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박물관 견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으며 교과서의 많은 부분에서도 박물관 자료들이 수록됐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박물관과의 연계가능성을 현장 체험학습, 재량활동, 교과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와 연계된 박물관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학교교육이 지닌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데, 학교에서의 교육은 주로 교과서라든지 텍스트 기반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물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오감 기반 교육환경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교육의 제한점을 박물관과 연계할 때, 교과서에서 사진으로만 접했던 여러 예술작품과 역사적 전시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감성을 키워주고,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자로서의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차 21세기 문화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소유한 시민으로의 함양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실물기반학습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와 연계하는 박물관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체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

우선 국외와 국내의 경우를 나누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면 학교연계 교육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박물관 설립은 한나라의 문화적 긍지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박물관의 행보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

29) 김인희, “박물관 교육의 필요성과 동향”, 『한국교육개발원』, p.54

에 따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박물관교육을 기존 정규교육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각 지역의 박물관사업으로 인한 교육으로 보는 등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다르지만,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중요시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은 같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박물관 교육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박물관 관련 연구 및 실천기관, 단체 등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보호·번영하고, 지역문화시설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프랑스는 1968년 ‘새로운 학교를 위하여’라는 한 학회를 통해 문화기관과의 학교연계교육이 강화되고 다양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여 교육담당자 등과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외 박물관교육은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오래전부터 강조해오고 있으며,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 박물관과의 연계를 사회과목의 필수적인 조건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국외는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호 협조 역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와의 연계교육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교사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강연이나 워크숍을 통해 교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여 보다 질 좋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sup>30)</sup>

박물관을 통해 전통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과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과거의 유물과 유적에 대한 직접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롭다고 할 수 있다. 미술교육은 감각 매체를 선행조건으로 하는 학습이므로 다양한 영상자료와 사실적인 유물이 보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은 가장 최적화 된 교육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은 가장 중요한 문화센터 중 하나이고 박물관을 통한 전통미술 감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박물관의 전통미술 작품은 학습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 각종 도판이나 유물 혹은 영상 자료 등은 교육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재질이 나 색상, 작품의 규모에 따른 느낌 등은 작품을 제작하던 당시의 현상이 아니고선 알 수 없다. 학생들은 실제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 전통미술문화에

30) 강인애 외, 『박물관교육의 다양성』, 문음사, 2010, pp.205~208

대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둘째, 박물관을 통한 미적체험 학습을 통해 우리 민족이 일궈온 전통, 민족의 얼과 멋을 계승하고 새로운 미술문화로 재해석하여 우리 미술문화의 우수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된다.

셋째, 학교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오로지 교사가 학생에게만 전달하는 수직적 관계이지만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전통 미술품을 감상하면서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평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감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초등학생에게 전통미술에 대한 올바른 감상법을 교육할 때에는 대상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교육하고, 학생이 갖고 있는 미의식을 감정이나 정서 등과 연관 지어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감상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우리의 전통작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수성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통미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교육과 어울리는 감상활동이 함께 필요한 것이다.<sup>31)</sup>

---

31) 이숙희, 『박물관 견학을 통한 전통미술 감상지도 방안』, 한국교원대 교육대 초등미술교육전공, 2004, pp.15~16

## 제3절 학교와 박물관·미술관의 통합교육으로 인한 효과적 인 전통미술 교육프로그램

### 1. 박물관·미술관과 학교통합교육 방안

앞서 박물관프로그램 학교교육연계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박물관·미술관(이하 박물관) 교육을 통한 미술교육의 효과는 학교교육이 채워줄 수 없는 비형식적 교육을 통한 교사와 학생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주어 그 시너지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의 전통미술교육과 박물관에서의 전통미술교육은 어떠한 연관성을 가져야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교육상황을 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학교 등의 보편적인 강좌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한계성을 가진 박물관 교육은 지식전달을 위주로 진행되고, 흥미를 위해 약간의 실기 프로그램도 같이 실천하고 있다. 박물관의 소장품을 탁본하기, 도자기 제작하기, 보고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들은 직접 체험한다는 작업 이외에 학교 미술교육과 다름없다.

공예수업에서도 주로 제작을 행하고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박물관에서 행한다는 전통미술교육의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나 문화센터에서 시행하는 전통미술교육과 현재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거의 유사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기획되지 못하고 교육방법 및 내용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박물관에서 전통미술을 교육할 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해석을 기반으로 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된 전통미술에 대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아주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체험학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박물관에서 전통미술을 교육하는 것이다. 박물관에서 감상자가 전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숙지하

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측면이 구성주의적 교육이론에 근거한 학습인데, 기존 공교육의 정형화된 환경 속에서 학습자에게 지식을 주입함으로써 흡수하게 하는 관점에서 작품 감상자가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체험 학습적 측면이 고려되어 박물관에서의 전통미술을 행할 때 그 의미가 클 것이다.

둘째, 박물관에서 전통미술교육은 실제적 성격의 과제중심의 학습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박물관의 전통미술에 대한 교육은 박물관의 실제 유물이나 예술작품을 보고 느낌으로써 직접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학교에서의 미술교육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상황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실질적 상황이 내제된 과제나 교육내용은 교과서 중심의 교육내용이나 과제보다 훨씬 의식적으로 깊은 사고를 요구하게 되며 학습자에게 전통미술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다 강하게 동기부여 할 수 있다.

셋째, 전통미술교육에서 학습자는 지식과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지식, 정보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박물관에서 전통미술교육은 관람자가 속해 있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협동학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이 전통미술에 대한 인지결과와 해석에 대한 결과물이 협동학습 과정을 통해 검증되기 때문이다. 여러 명이 함께 학습하는 환경을 통해 감상자들은 박물관에서 일어난 경험이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관점을 습득할 수 있으며, 더 깊이 있게 사고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넷째, 박물관에서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방식을 유도하는 전통미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습자의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경험과 전통미술의 영역을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박물관 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전통에 대해 질의응답 및 분석을 해보고, 이러한 의미들을 새롭게 구성해 보는 것이 박물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물관에서 전통미술교육은 박물관의 기능적 특성과 작품의 특성들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 교육의 주된 특징이 실물을 기반으로 한 학습에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박물관에서 소장품과 관련된 전통미술교육의 개발과 실행은 상당히 주요한 부분이다.<sup>32)</sup>

32) 김형숙, 『전통미술교육과 박물관』, 미술교육연구논총, Vol.14(2), 2003, p.25

작품과 유물을 직접 접하면서 오는 교육적 효과를 가진 박물관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학교교육의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박물관과 학교연계교육은 국외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대상에 다양성이 부족하여 주로 초등학교에 국한되어 있으며, 설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단위가 매우 적었으며, 교육 형식에도 주로 체험식에 치중하여 오히려 탐구적 방식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일단 교사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통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박물관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서로 다른 두 기관 간에 상호신뢰와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동조적 체제를 구성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박물관과 학교연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한다.

#### 1) 초등 미술에 있어서 박물관·미술관의 교육적 활용

초등학교의 미술교육과정은 공통 기본교육과정 기간인 10학년까지 중에서 6학년까지를 말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과정의 기본체계와 내용은 전체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으나, 미적체험, 표현, 감상영역과 세부적인 지도 항목은 학생들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학급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초등 1,2학년 과정에서 교과내용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술과의 경우 ‘즐거운 생활’에 체육과목, 음악과목을 함께 통합 지도하고 있다.

미술교과에서 감상영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교육보다는 실물교육을 강조하는 박물관·미술관(이하 박물관) 현장학습에 대한 교과연계교육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 박물관 관람객의 절반 이상이 초·중·고 학생이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책가방 없는 날, 체험학습의 날 등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1학기에 1회 이상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의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

체계의 확대방안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여러 박물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와 연계하여 학급단위 또는 특별활동으로 박물관·미술관에서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를 통한 단체관람으로 박물관을 방문하고, 박물관과 직접 관련한 교과내용은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과목에 들어있으며, 특히 방학 기간에는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방문하거나 친구들과 소그룹으로 방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박물관 현장학습은 교육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관람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문화재를 조사·관찰하고 감상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데 이는 학교교육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박물관에서 직접 체험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며 학습자 스스로가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쌓는 자발적 학습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술교육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교육이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사회나 과학 등의 많은 수업들은 영상자료나 도판을 이용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미술교과에 나타난 박물관 소장품을 현장학습을 통해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sup>33)</sup>

박물관 교육은 비형식적 교육이기 때문에 형식적 교육인 학교교육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교육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박물관교육과 학교교육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게다가 정보화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매체인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친숙하고 재미있게 미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아이들에게 박물관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등 몇 개의 대표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외국 기관들의 경우 대부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어린이들을 위한 지식·정보를 제공함으

33) 김아라, 『초등학교 미술 현장학습과 연계한 경북대학교 박물관 셀프가이드 연구』, 경북대학교교육대학원, 2010, pp. 8~11

로써 아이들이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한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지속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을 세분화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어린이의 학습능력은 나이, 환경, 지적·사회적·정신적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어린이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교육하면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으며, 직접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능력은 함양되고 사고력은 깊어지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반드시 감상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수준과 관심의 정도를 고려하여, 재미와 친숙함을 주어야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표, 참여 대상과 박물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자연스러운 호기심에 의한 참여, 발견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한다. 때문에 어린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미술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퀴즈나 게임 등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작품을 감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보고 그리기, 활동지, 토론 등을 활용하여 사고를 폭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물관의 어린이교육 프로그램은 우선 미술작품에 대한 흥미, 관심, 즐거움을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하여 이를 토대로 인지하고 이해하여 사고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과 놀이의 개념을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sup>34)</sup>

---

34) 김종대 외, 『박물관 교육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2010, pp.57~61



## 2) 학교연계 교육의 방향

학교연계교육은 박물관 등의 기관들이 선행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학교교육의 과정 및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려면 박물관의 교육담당자의 확대편성이 필요하다. 인원을 확충하고 교육담당자에게 재정적, 시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학교와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학교연계교육으로서 프로그램의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박물관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것은 박물관과 교사가 교육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및 교사의 사전학습 계획의 철저한 준비로 이루어져야 한다. 박물관 체험학습이 교사가 학생들을 그곳까지 안내지도 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직접 설명하고 질문함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과 정부기관이 교사들을 위한 교육을 넓혀 보충하고 학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도록 도와야 한다.

연계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인터넷을 통해 관람 체험학습을 갈 박물관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다. 해당인터넷 홈페이지나 참고자료를 검색하여 전시중인 작품들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작품과 작가를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관심 있는 유물이나 작품은 더 세밀하게 정보를 찾도록 한다.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국가기관에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고 박물관 당국도 미래문화의 향유자가 될 학생들을 위한 관심 및 투자가 더욱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 평생학습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이상의 논의는 이제 이론적 논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를 향한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좀 더 실천 위주의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sup>35)</sup>

35) 강인애 외, 『박물관교육의 다양성』, 문음사, 2010, pp.245~247

## 2. 통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 1) 프로그램 전개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의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은 전시물 또는 문화 내용을 이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기획하고 개발함으로써 교재 중심의 형식적인 학교교육 방식과 차별화된 문화체험 현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연령별·내용별·시기별로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교육 운영을 시행하고 시청각자료·전시관람·체험학습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학습하게 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 하고 문화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은 크게 학기 중 학교별, 학급별로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학교 연계 교육과 방학 때 부모님 혹은 친구 등의 소집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학 중 교육, 그리고 박물관이 특별전을 개최하는 경우 전시 기간 중에 운영하는 전시연계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박물관의 전시물, 소장 작품 등을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교과서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한다.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체험함으로써 창의력을 기르고 스스로 탐구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sup>36)</sup>

36) 국립민속박물관, 『박물관 교육의 새로운 이해』, 민속원, pp.53~54

2) 프로그램 내용 예시

(1) 학교 연계 교육안

① 배우Go! 만들Go!

교육내용:

- 배우기 : 봉산탈춤, 다도체험, 단소
- 만들기 : 종이죽향아리, 방패연, 떡, 한지필통, 닥종이인형, 단청

\* 사전교육 : ‘동이와 장이의 박물관 여행기’와 ‘멋진 관람 우리들의 약속’ 애니메이션 시청(교육 전 학교에 비디오 발송하여 미리 시청한다)<sup>37)</sup>

<표 9> 배우Go! 만들Go!

시간	구분	내용	비고
사전 교육 : 국립민속박물관 소개 및 관람 예절 알기			
10:00-12:00	민속 문화체험 1 “배우기”(택일)	봉산탈춤 배우기	
		다도 체험하기	
		단소 연주하기	
12:00-13:00	식사 및 전시실 자유관람		안내 및 설명 : 인솔교사
13:00-15:00	민속 문화체험 2 “만들기”(택일)	종이죽 향아리 만들기	3학년이상
		방패연 만들기	
		재미있는 떡 만들기	
		한지육각필통 만들기	4학년이상
		닥종이 인형 만들기	
전통문양(단청) 그리기			

37) 국립민속박물관, 전게서, p.58~59

② 우리네 풍습<sup>38)</sup>

교육목적:

- 교과 연계 민속 문화 심화학습을 통한 역사·민속 문화 체험 기회 제공
- 교재와 시청각 학습을 통한 민속 문화 이해 및 학습 효과 증진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 교육내용 : 한국인의 일생의례

<표 10> 우리네 풍습

대상	초등학교 3-4학년	교육시간	180분
학습주제	전통 의례 중 하나인 돌잔치의 의미와 그 날을 축하하기 위해 입는 돌복에 대해 알아본다.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어나서 처음 맞는 생일인 돌의 의미와 돌상차림, 돌잡이 등 전통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li> <li>· 돌 때 입는 돌복의 종류와 옷감의 종류 및 옷감 짜는 방법을 알아 보면서 의생활 문화를 이해한다.</li> <li>· 과거의 돌잔치와 현재의 돌잔치 모습들을 비교해보고 그 특징을 살펴본다.</li> </ul>		
프로그램개요	첫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의미를 부여했던 우리 선조들의 돌잔치 풍습을 현재와 비교해보고, 의생활 관련 체험, 만들기, 전시장 관람 등으로 구성하여 돌잔치의 의미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교과	사회 3-1 고장의 생활과 변화 사회 3-2 변화하는 전통 의례 실과 5 옷 입기와 관리하기		

38) 국립민속박물관, 『박물관 교육 교수·학습과정안』, 2014, pp.111~112

(2)방학 중 교육안

우리솜씨 우리문화

교육내용 :

- 공예품 만들기

<표 11> 우리솜씨 우리문화

관련교과		-슬기로운 생활 1-2 : 종이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미술 3-1 : 찰흙의 세계 -미술 5-1 : 수묵화와 채색화			
과정	시간	학습내용			
		우리의 전통모자	예쁜 민화 액자	애들아, 서당가자	흙으로 무엇을 만들까 ?
이론	20분	조바위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배운다	민화에 담긴 의미를 알아본다	문자도의 특성을 알아본다	흙의 유용함과 도자기 만들기 순서를 알아본다
체험	100분 ~ 160분	조바위를 취향대로 만들어 보기	-고학년 호랑이 민화 액자 만들기 -저학년 학 민화 액자 만들기	-고학년 여러 가지 문자도를 그려본다	-고학년 기마인물 토기 만들기 -저학년 꽃병 만들기

(3) 기획전시 연계 교육안<sup>39)</sup>

① 민화와 떠나는 미술여행

교육내용 :

- 전시 관련 영상 활용 이론 학습 및 전시실 관람, 만들기 체험

<표 12> 민화와 떠나는 미술여행

학습주제		사랑방을 장식한 민화		
학습목표		-사랑방의 구성과 그곳에 있는 민화를 살펴본다 -교훈을 담은 민화에 대해 알아본다		
과정	시간	학습내용	내용 및 장소	자료활용
호기심 유발	20분	지금 사랑방엔	-사랑방엔 누가 있을까요 ? -사랑방에 어떤 가구가 있을까 ? -사랑방에 있는 민화는 ?	시청각 교육(ppt)
탐구	30분	어떤 그림일까 ?	전시 작품 보기 : 사랑방	전시실
체험 활동	60분	직접 표현하기	입체 민화 병풍 만들기	표현 재료
발표	30분	나는 이렇게 했어 !	-자기 작품 발표 -교재 풀어보기	작품, 교재
정리	10분	설문지		설문지

39) 국립민속박물관, 전게서, pp.74~76

② 우리의 멋을 품은 도자기

교육내용 :

- 전시 관련 영상 활용 이론 학습 및 전시실 관람, 만들기 체험

<표 13> 우리의 멋을 품은 도자기

학습주제		먹으로 그리는 문자도의 활용		
학습목표		- 전남지역의 도자기에 대해 배운다 - 도자기에 먹을 이용하여 문자도를 그려본다		
과정	시간	학습내용	내용 및 장소	자료활용
호기심 유발	20분	도자기, 찬란한 문화	-도자기의 역사 -도자기의 종류	시청각 교육(ppt)
탐구	30분	무엇이 있을까 ?	전시 작품 보기	전시실
체험 활동	60분	그려보자	문자도 도자기 만들기	표현 재료
발표	30분	나는 이렇게 했어 !	-자기 작품 발표 -교재 풀어보기	작품, 교재
정리	10분	설문지		설문지

3) 평가

국립민속박물관의 자료를 통해 학교와 연계하는 교육, 방학 중 교육, 기획전 교육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참여자의 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만 5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들은 대부분 국립민속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나 다른 박물관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한 기관 역시 과학관을 비롯하여 생활사 박물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며 교육의 내용 역시 의식주 생활에서부터 제작 체험, 놀이 체험, 전시실 관람까지 다양하였다. 특히 체험교육이나 견학프로그램을 자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유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 참여율이 높았다. 프로그램 체험 경험이 있는 어린이와 학부모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점차 다른 기관으로 참여폭을 넓혀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체험 내용을 보면 미술·공예교육에서 역할체험교육, 현장답사, 과학과 생태교육 등 영역이 다양하며 교육 장소 또한 서울에서 경기, 전남, 경남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 이상의 많은 학생들은 박물관을 비롯한 다른 기관에서 문화체험을 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청소년 교육의 경우 체험 경험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교육 후 긍정적으로 반응한 비율이 9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평소 박물관·미술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대답을 하였다. 앞으로 박물관·미술관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의견으로는 토론식 관람, 다양한 체험, 사진 찍기, 영상물 보기 등이 나왔고 음성안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얻은 지식이 이해가 더 잘 되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의견이 있어 박물관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학교연계교육에서 학교는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연관이 있는 내용을 선호하였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공지할 때 관련 교과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박물관·미술관에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활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교사의 역할 및 활용에 대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각 교육별로 수업에 재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더욱 실속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소수의 불참 의견을 피력한 사람들이 박물관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sup>40)</sup>

---

40) 국립민속박물관, 전게서, pp.77~79



### 3. 학습지도안

<표 14> 학습지도안 1차시 - 소망을 담은 그림으로 병풍 만들기

주제	소망을 담은 그림으로 병풍 만들기	차시	1/2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시대의 역사 및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자신만의 꿈을 민화로 표현하여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li> </ul>			
지도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과 학습자료
		교사	학생	
도입 (5)	학습단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출결확인</li> <li>▶ 동기유발 및 본시 학습 목표 제시</li> <li>▶ 흥미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견학 후,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다.</li> <li>- 민화 책가도 작품을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흥미 유발한다.</li> <li>- 참고작품을 보고 느낌을 질문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학습목표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느낌을 발표한다.</li> <li>- 책가도 작품을 감상하고 특성을 이해한다.</li> <li>- 질문에 대답한다.</li> </ul> </li> </ul>	PPT
전개 (35)	작품제작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화의 개념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화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한다.</li> <li>- 민화의 책가도가 무엇인지 질문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화의 개념 및 특징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에 대답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화에 나타난 책가도</li> <li>- 참고자료 작품을 감상 후 계획서를 작성한다.</li>   <li>▶ 밑그림 그리기</li> <li>- 작품계획서에 따라 스케치한 후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스케치한다.</li> <li>- 순회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계획서를 작성한다.</li>   <li>▶ 밑그림 그리기</li> <li>-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스케치한다.</li> </ul>	<p>PPT</p> <p>A4, 연필, 지우개</p>
정리 (5)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예고</li> <li>▶ 학습정리</li> <li>- 주변을 정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 준비물 인지</li> <li>▶ 학습정리</li> <li>- 주변을 정리한다.</li> </ul>	

<표 15> 학습지도안 2차시 - 소망을 담은 그림으로 병풍 만들기

주제	소망을 담은 그림으로 병풍 만들기		차시	2/2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시대의 역사 및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li> <li>자신만의 꿈을 민화로 표현하여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li> </ul>			
지도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과 학습자료
		교사	학생	
도입 (5)	학습단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출결확인</li> <li>▶ 준비물 확인</li> <li>▶ 전시학습 확인</li> <li>▶ 본시 학습목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준비물 확인</li> <li>▶ 전시학습 확인</li> <li>▶ 학습목표 인지</li> </ul>	
전개 (35)	작품제작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계획서에 그린 스케치를 도화지에 그리기</li> <li>- 스케치 부분을 물감으로 표현한다.</li> </ul> </li> <li>▶ 작품완성 확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마무리를 한다.</li> <li>- 순회지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화지에 스케치한다.</li> <li>- 다양한 색으로 표현한다.</li> </ul> </li> <li>▶ 작품완성 확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수정한다.</li> </ul> </li> </ul>	미니병풍, 도화지, 물감재료, 색연필, 싸인펜, 연필, 지우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의 작품 감상</li> <li>- 서로의 작품에 대해 질문하고 감상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감상</li> <li>- 서로의 작품에 대해 칭찬하고 감상한다.</li> </ul>	
정리 (5)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예고</li> <li>▶ 학습정리</li> <li>- 주변을 정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 준비물 인지</li> <li>▶ 학습정리</li> <li>- 주변을 정리한다.</li> </ul>	

<표 16> 학습지도안 1차시-조물조물 우리역사

주제	조물조물 우리역사		차시	1/2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사시대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빗살무늬토기를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ul>			
지도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과 학습자료
		교사	학생	
도입 (5)	학습단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출결확인</li> <li>▶ 동기유발 및 본시 학습 목표 제시</li> <li>▶ 흥미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견학 후,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다.</li> <li>- 빗살무늬토기 작품을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흥미 유발한다.</li> <li>- 참고작품을 보고 느낌을 질문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학습목표인지</li> <li>- 자신의 느낌을 발표한다.</li> <li>- 빗살무늬토기 작품을 감상하고 특징을 알고 느낌을 발표한다.</li> <li>- 질문에 대답한다.</li> </ul>	PPT
전개 (35)	작품제작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빗살무늬토기 특징</li> <li>- 빗살무늬토기 특징을 설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빗살무늬토기 특징</li> <li>- 빗살무늬토기에 대해 특징을 이해한다.</li> </ul>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빗살무늬토기를 만드는 과정, 용도에 대해 설명한다.</li> <li>▶ 빗살무늬토기</li> <li>- 참고자료 작품을 감상 후 계획서를 작성한다.</li> <li>▶ 밑그림 그리기</li> <li>- 작품계획서에 따라 스케치한 후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스케치한다.</li> <li>- 순회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빗살무늬토기에 대해 이해한다.</li> <li>- 작품계획서를 작성한다.</li> <li>▶ 밑그림 그리기</li> <li>-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스케치한다.</li> </ul>	<p>A4, 연필, 지우개</p>
정리 (5)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예고</li> <li>▶ 학습정리</li> <li>- 주변을 정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 준비물 인지</li> <li>▶ 학습정리</li> <li>- 주변을 정리한다.</li> </ul>	

<표 17> 학습지도안 2차시-조물조물 우리역사

주제	조물조물 우리역사		차시	2/2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사시대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빗살무늬토기를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ul>			
지도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과 학습자료
		교사	학생	
도입 (5)	학습단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출결확인</li> <li>▶ 준비물 확인</li> <li>▶ 전시학습 확인</li> <li>▶ 본시 학습목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준비물 확인</li> <li>▶ 전시학습 확인</li> <li>▶ 학습목표 인지</li> </ul>	
전개 (35)	작품제작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계획서에 그린 스케치를 보고 찰흙으로 토기를 만든다.</li> <li>- 자신만의 빗살무늬를 그린다.</li> </ul> </li> <li>▶ 작품완성 확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마무리를 한다.</li> <li>- 순회지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찰흙으로 토기를 만든다.</li> <li>- 다양하게 표현한다.</li> </ul> </li> <li>▶ 작품완성 확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수정한다.</li> </ul> </li> </ul>	찰흙, 이쑤시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의 작품 감상</li> <li>- 서로의 작품에 대해 질문하고 감상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감상</li> <li>- 서로의 작품에 대해 칭찬하고 감상한다.</li> </ul>	
정리 (5)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예고</li> <li>▶ 학습정리</li> <li>- 주변을 정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 준비물 인지</li> <li>▶ 학습정리</li> <li>- 주변을 정리한다.</li> </ul>	



<표 18> 학습지도안 1차시 - 한지와 돌복의 만남

주제	한지와 돌복의 만남		차시	1/2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의례 중 하나인 돌잔치의 의미와 돌복에 대해 알아본다.</li> <li>· 한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만의 돌복을 디자인할 수 있다.</li> </ul>			
지도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과 학습자료
		교사	학생	
도입 (5)	학습단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출결확인</li> <li>▶ 동기유발 및 본시 학습 목표 제시</li> <li>▶ 흥미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견학 후,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본다.</li> <li>- 돌잔치의 의미와 돌상차림, 돌잡이 등 전통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li> <li>- 과거의 돌잔치와 현재의 돌잔치 모습을 비교해보고 특징을 살펴본다.</li> <li>- 참고작품을 보고 느낌을 질문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학습목표인지</li> <li>- 자신의 느낌을 발표한다.</li> <li>- 돌잔치에 대해 이해하며 감상한다.</li> <li>- 질문에 대답한다.</li> </ul>	PPT

<p>전개 (35)</p>	<p>작품제작 과정</p>	<p>▶ 돌복의 종류와 특징 - 돌복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한다.</p> <p>- 한지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p> <p>▶ 돌복 디자인 - 참고자료 작품을 감상 후 계획서를 작성한다.</p> <p>▶ 밑그림 그리기 - 작품계획서에 따라 스케치한 후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스케치한다.</p> <p>- 순회지도</p>	<p>▶ 돌복의 종류와 특징 - 돌복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p> <p>-한지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p> <p>- 작품계획서를 작성한다.</p> <p>▶ 밑그림 그리기 -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스케치한다.</p>	<p>PPT</p> <p>A4, 연필, 지우개</p>
<p>정리 (5)</p>	<p>차시예고</p>	<p>▶ 차시예고 ▶ 학습정리 - 주변을 정리한다.</p>	<p>▶ 차시 준비물 인지 ▶ 학습정리 - 주변을 정리한다.</p>	

<표 19> 학습지도안 2차시 - 한지와 돌복의 만남

주제	한지와 돌복의 만남		차시	2/2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의례 중 하나인 돌잔치의 의미와 돌복에 대해 알아본다.</li> <li>· 한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만의 돌복을 디자인할 수 있다.</li> </ul>			
지도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과 학습자료
		교사	학생	
도입 (5)	학습단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출결확인</li> <li>▶ 준비물 확인</li> <li>▶ 전시학습 확인</li> <li>▶ 본시 학습목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li> <li>▶ 준비물 확인</li> <li>▶ 전시학습 확인</li> <li>▶ 학습목표 인지</li> </ul>	
전개 (35)	작품제작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계획서에 그린 스케치를 보고 한지로 자신만의 돌복을 디자인한다.</li> </ul> </li> <li>▶ 작품완성 확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마무리를 한다.</li> <li>- 순회지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지로 다양하게 돌복을 디자인한다.</li> </ul> </li> <li>▶ 작품완성 확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수정한다.</li> </ul> </li> </ul>	한지, 가위, 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의 작품 감상</li> <li>- 서로의 작품에 대해 질문하고 감상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감상</li> <li>- 서로의 작품에 대해 칭찬하고 감상한다.</li> </ul>	
정리 (5)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예고</li> <li>▶ 학습정리</li> <li>- 주변을 정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 준비물 인지</li> <li>▶ 학습정리</li> <li>- 주변을 정리한다.</li> </ul>	

## 제4장 결론

전통 미술 문화 교육은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그 성공과 실패가 가름된다. 즉 균등한 내용을 가르치는 데도 어떤 교수-학습방법이나 자료, 매체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통 미술 문화 교육은 그 성격상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미술 문화를 전제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미술문화를 학습 자료로 하여 학습할 때 자료의 활용이 쉽지 않음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년 간 연계성이나 계열성이 부족하여 교과서의 저자나 교육당국에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다. 교과서의 전통미술 관련 지면과 도판의 수는 현저히 적고 전통미술 이해, 감상, 제작과 연계된 지문의 제시도 빈약하다. 교사용 지도서에도 내용이나 교수활동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의 제시가 전통미술 교육의 목표 및 학습의 기본방향, 지도상의 유의점 등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sup>41)</sup>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전통미술교육이 가진 문제점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박물관·미술관과의 연계를 방안으로 제시하며 연구를 전개하였다. 그 과정을 언급하자면 현재 미술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교육과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미술교육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박물관·미술관 교육과 연계하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체험하는 미술교육의 대안으로서 박물관·미술관연계사례를 알아보았다.

사례에 이어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교육안을 모색해 본 후 평가를 해보았다.

박물관·미술관 연계 프로그램의 사례에서 눈여겨 볼 것은 사전학습에 있어서 교사의 사전준비이다. 교사인 연수기관이나 사회 교육기관에서 전통 미술 문화 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다.

장기적으로 교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장교사를 위한 연수기관의 전통미술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현장의 교사가 전통 미술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도 어디에서 무

41) 이성도, 『전통미술 문화교육』, 미진사, 2005, pp.351~352

었을 배워 가르쳐야 하는지 그 방향과 방법을 잡기란 쉽지 않다. 현재 미술  
 과의 전통 미술 문화 영역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체계적이지 못하기에 교수  
 -학습 방법에서도 그 다양성을 갖지 못한다. 교수-학습 방법은 감상이 중심  
 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상 또한 동시대의 미의식을 찾고 체험하면서 작  
 가의 내면세계와 조형 세계를 깊이 있게 감상하는 비평적 감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단편적인 역사적 배경과 명제를 통한 표면적 이해의 수준  
 을 넘지 못한다. 이것은 박물관·미술관 교육과 연계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때 그 심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박물관·미술관에서 전통문화의 열과 전통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다  
 양한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  
 를 실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교육을 위한 제도적 정착이  
 아직 불완전하고 박물관·미술관 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도 부실한  
 상태이다.

박물관·미술관에서 전통미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담당자를  
 비롯하여 교사연수를 통한 교육의 전제조건인 정립이 급선무이지만, 또한 박  
 물관·미술관과 학교교육이 밀접하게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미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물관은 학교의 장점을 활용하고, 학교는 박물관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상호 교육의 혼합을 통해 전통미술교육을 위  
 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이 앞으로 점점 더 개발되어야 한다.<sup>42)</sup>

---

42) 김형숙, 전계서, p.25

## 참고문헌

- 단행본 -

이성도, 『전통미술 문화교육』, 미진사, 2005.

김혜숙, 김성숙 외 2,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12.

전성수, 『교과교육학&미술교육학』, 한국학술정보, 2006.

홍선표, 『한국의 전통회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김정희, 『불화, 찬란한 불교미술의 세계』, 돌베개, 2009.

George E. Hein 저\_안금희, 김해경 외 2명 역, 『박물관교육론』, 학지사, 2015.

강인애 외, 『박물관교육의 다양성』, 문음사, 2010.

김정희 외,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3.

- 국내 학술지 -

이성도, 「2007 개정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의 전통문화에 관한 내용 분석 연구」, 미술교육논총 2012 제26권 2호 29-56, 2012.

류재만, 「박물관 미술학습을 통한 전통미술지도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Vol.14(2), p.37, 2003.

김형숙, 「전통미술교육과 박물관」, 미술교육연구논총, Vol.14(2), p.25, 2003.

김인희, 「박물관 교육의 필요성과 동향」, 한국교육개발원, 114('98.7) p.46-54, 1998.

최종호, 「박물관학에서 바라보는 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연구, Vol. 1 No. 1 p. 47~69, 2006.



- 학위논문 -

오영, “한국미술교육과정에 반영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사상 : F.Cizek을 중심으로”,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수진, “박물관 교육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교육적 의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이숙희, “박물관 견학을 통한 전통미술 감상지도 방안”, 한국교원대 교육대초등미술교육전공, 2004.

박선미, “초등미술교과에서 전통미술의 이해 지도에 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최성조, “전통미술의 미의식 함양을 위한 감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이미지, “박물관·미술관 감상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02

손자영, 『초등미술교육에서 국립광주박물관을 활용한 감상과 표현 연계 프로그램 적용 사례』,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김아라, 『초등학교 미술 현장학습과 연계한 경북대학교 박물관 셀프가이드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Internet Web site -

<http://blog.naver.com/homebell5013?Redirect=Log&logNo=20203594525>

[http://gwangju.museum.go.kr/sub6/sub1\\_view.do?boardId=G1277363934015&idx=8315&type=&page=](http://gwangju.museum.go.kr/sub6/sub1_view.do?boardId=G1277363934015&idx=8315&type=&page=)